

“부산엑스포 유치에 진심”… 부산시청에 홍보영상관 개관

과거 세계박람회 영상 체험 가능 시청 1층 일부 공간 활용해 조성 입구에 BTS 친필 서명 담긴 백월

부산시가 시청 1층 부산미래도시관 일부 공간을 활용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관’을 조성하고, 2일부터 개관한다.

홍보영상관 입구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BTS의 친필 서명이 담긴 백월(back wall)을 입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백월은 가로 6.4m 높이 2.8m로 표면이 강화유리로 덮여있다. 이 백월에 담긴 서명은 지난 7월 19일 BTS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될 당시 이들이 실제 서명한 것으로, 방문객들은 강화유리 표면에 자신의 서명을 더해 보며, BTS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가 되어볼 수도 있다.

이어 그간 개최됐던 세계박람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관.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는 ‘우주선 내부 공간’에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타임머신을 타기 전 대기공간 역할을 하며, 관람객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한다. 내용은 개최의 당위성과 주·부제를 인포그래픽 등으로 표현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정재 씨도 영상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에 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타임머신의 문이 열리고 가로 14m, 높이 4.2m 173도 곡면의 대형 파노라마 와이드 스크린에서 수준 높은 연출 방법이 접목된 세계박람회 3D 그래픽 실감 영상이 상영된다.

실감 영상은 사람, 협력, 화합, 혁신의 물결을 시각화한 세계박람회 로고 미디어아트가 30~40초 정도 표현

되는 대기영상과, 1851년 세계 최초의 영국 런던 세계박람회장에서부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장에 이르기까지 우주선에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4분 30초 동안 시간여행을 떠나보는 메인영상으로 구성됐으며, 상영 후 반응형 장치를 통한 짧은 영상과 설명도 체험해볼 수 있다.

홍보영상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홍보영상관을 통해 흑백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과거의 세계박람회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느껴보고, 세계박람회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배워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부산이 왜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몸소 체험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우수기관’

여수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평가(2021년 실적)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매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설 운영실적을 조사 분석 평가하며 주요 평가항목은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 거버넌스 등이다.

여수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총점 92점을 획득해 전국 71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환경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됐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담양군

음식특화 ‘창평국밥거리’ 조성

전남 담양군이 새로운 음식특화거리인 ‘창평국밥거리’에 대한 새단장을 마쳤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1년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창평국밥거리에 대한 조성사업을 지난 해말 모두 완료했다.

창평국밥거리 조성사업은 음식문화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공식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 원(도비, 군비 각 5억 원)을 투입해 진행됐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교육청

1회용 컵없는 생태전환교육 선포

경북교육청이 2일 교육청 옹비관에서 ‘1회용 컵 없는 생태전환 경북교육 선포식’을 가졌다.

이 선포식은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 학교로 이어진다.

교육청은 이 선포식을 계기로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교육청 주관 모든 행사에는 1회용 컵 사용이 제한되고 이는 점진적으로 모든 교육 활동으로 확대된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진주시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진주시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2023년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사업은 쌀 전업농 육성지원 외 식량작물분야 5개 사업, 친환경 우렁이 농법, 온새미로 농법 지원 외 환경농업분야 12개 사업, 축산 악취 개선,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외 축산정책분야 33개 사업,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 외 가축방역분야 5개 사업으로 총 61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경남)=김영찬 기자

역세권 스마트거리 만든다 영주시, 경북도 유일 선정

지역문제 개선… 재생사업효과 제고
다목적 스마트폴, 스마트횡단보도

경북 영주시의 역세권이 스마트거리로 탈바꿈한다.

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도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이미 선정돼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지의 세부기능과 연계한 스마트기술을 구축해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요 의견 청취 및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지난해 11월 공모에 신청했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존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영주역~경북전문대학교)에 총 사업비 8억 2800만 원을 투입해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올해 안에 다목적 스마트폴 10개소 및 스마트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폴은 가로등, 보안등, 다목적 폐쇄회로(CC)TV, 공공 와이파이, 풍력발전설비,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비상벨 등 최첨단 기기를 통합 설치한 지주(支柱·Pole)를 말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실생활에서 체감가능한 스마트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북)=김상복 기자 ods08222@



매년 봄이면 100만이 넘는 방문객의 발길을 모으는 광양매화마을.

광양시 2023 주목해야 할 인기 여행지 선정

전년 대비 예약 증가율 높은 순

광양시가 전 세계 여행 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국내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한 ‘2023 주목해야 할 국내 인기 여행지 탑 10’에 포함됐다.

부킹닷컴은 지난해 10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의뢰해 국내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예약한 100곳 중 전년 대비 예약증가율이 높은 순으로 10곳의 여

행지와 숙소를 발표했으며 광양을 보면 매화와 벚꽃으로 만개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풍부한 문화예술과 먹거리가 공존하는 가능성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양예술창고를 참고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핫플레이스라고 평가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창원시, 창원~수서간 SRT 도입 ‘적극’

동대구~창원 구간 고속전용선 부재

창원특례시가 고속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전선 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고속철도 이용객 감소로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22년 경전선 KTX의 이용객이 38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창원에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

전선 KTX가 하루 상·하행 34회 운행되고 있지만,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창원에서 서울 강남지역으로 가려면 동대구역에서 환승을 하거나 서울역에 내려 시내 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동대구~창원 구간은 고속전용선이 없어 KTX를 이용하더라도 느린 속도로 운행되는데 SRT 환승을 위해 평균 23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고속철도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완도군, 귀어·귀촌인 파격 지원

창업자금 최대 3억 등 용자

완도군은 1월 2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 창업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정착하면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7,500만 원을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귀어업인 및 재

촌 비어업인으로, 만 65세 이하이다.

‘귀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뜻하며, ‘재촌비어업인’은 농어촌에 거주하지만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완도군 귀어 가구는 전체 어가 중 25.2%로 완도가 고향인 귀어인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